

해외의약뉴스

약사 주도 사례관리가 뇌졸중 환자의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킬 수 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요

캐나다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약사가 사례관리한 뇌졸중환자의 혈압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간호사가 사례관리한 뇌졸중환자의 수치와 비교해 12.5%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알버타 지역의 환자 279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 6개월간 무작위대조군연구를 실시한 결과 간호사가 사례관리한 환자들의 30%가 목표수치에 도달한 반면, 약사가 사례관리한 환자들의 43%가 목표수치에 도달했다.

키워드

뇌졸중, 약사 사례관리자(pharmacist case manager), 혈압, LDL 콜레스테롤, 목표수치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발표된 임상시험 결과에 의하면 약사가 사례관리한 뇌졸중환자의 혈압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간호사가 사례관리한 뇌졸중환자의 수치와 비교하여 12.5%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을 경험한 환자들은 심혈관계 유해사례 발생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뇌졸중 발생 후에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유해사례 발생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발생 후 많은 환자들이 충분한 관리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지정된 사례관리자들이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연구진들은 지정된 사례관리자가 이전에 뇌졸중 또는 일과성허혈발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무작위 대조군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는 캐나다 알버타 애드몬튼 지역에 사는 성인 환자 279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두 집단(약사가 관리하는 집단 vs 간호사가 관리하는 집단(대조군))으로 나눠 환자들을 관찰했다. 참여자들의 평균나이는 67.6세, 평균 최대혈압 134mmHg, 평균 LDL 콜레스테롤 3.23mmol/L 이었다.

약사 및 간호사 사례관리자들은 환자들의 식이, 흡연, 운동, 라이프스타일 등에 대해 상담했고, 혈압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였으며, 환자들의 방문 후에는 해당 주치의들에게 상담 결과를 제공하였다. 또한 약사 사례관리자들은 현재 캐나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약물요법을 시행하였고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약의 복용량을 조절했다.

연구초기에는 캐나다 뇌졸중 가이드라인 수치에 부합되는 환자들은 아무도 없었으나, 6개월 동안의 사례관리 후 간호사가 관리한 대조그룹 환자들의 30%가 목표수치에 도달하였고, 약사가 관리한 그룹의 43%가 목표수치에 도달하여 두 그룹 모두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약사 사례관리자들의 경우 사례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교육은 받지 않았고, 경력이 유사한 약사들로 구성되어, 환자 교육 자료와 치료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제공받았다.

혈압 수치는 두 그룹 환자들에서 유사한 정도로 개선되었지만, LDL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가 사례관리자로 있는 대조그룹의 34%가 LDL 콜레스테롤의 목표 수치에 도달한 것과 비교하여, 약사가 사례관리자로 있는 그룹은 51%가 LDL 콜레스테롤 목표수치에 도달하였다. 연구진들은 약사 사례관리자들이 최적의 치료결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약물요법 및 약용량을 조절했고, 이것이 이로인한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험군 혈관질환자들에게 두 가지 사례관리 방법 모두 큰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이 연구가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비교하는데 매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 원문정보 ■

<http://www.medicalnewstoday.com/releases/275335.php>